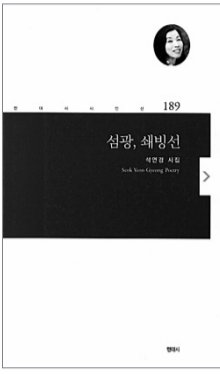


“생태적 사유·불교적 세계관 공유하고 싶어”

시집 '섬광, 쇠방선' 펴낸 석연경 시인
숲길·먼지 등 소재 60여편 수록
“순천서 모든것 어우르는 삶 추구”



“제게 순천만은 낙원이고 하나의 이상 세계입니다. 하나의 우주이자, 한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생태적 사유와 불교적 세계관이 작품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2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펴낸 석연경 시인. 오랫동안 창작에 정진해온 이들에게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근기와 여유가 느껴졌다. 출간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시집을 소개하는 시인에게선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3년 ‘시와 문화’에 시가, 2015년 ‘시와 세계’에 평론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석연경 시인

기자는 최근에 두 번째 시집 ‘섬광, 쇠방선’ (현대시·사진)을 펴낸 석연경 시인과 인터뷰를 했다. 10여 년 전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인연이 있어 어느 정도 시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알에 지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시집 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자는 그녀가 어떻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고, 왜 시를 쓰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난한 창작의 길을 걸어가리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일래 저의 첫 전공은 건축이었습니. 건축가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했는데 아파트 건설현장은 제 정서와 잘 맞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은 무엇인가 고민을 했죠.” 본격적으로 문학을 전공하자는 생각에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 그녀의 나이 삼십대 중반 무렵이었다. 문예창작을 공부하면서 모든 장르가 나름의 매력에 있음을 알게 됐다. 그녀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에 철학과 대학원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그 즈음 국문과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국문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웃었다.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불교, 철학, 심리학에 심취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했다. 그때 했던 공부는 후일 창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시인이 첫 번째 시집 ‘독수리의 날’ (천년의 시작)에서 보여줬던 시적 깊이와 예민

한 감각은 그러한 공부, 어쩌보면 삶의 여정과 무관치 않을 터였다.

특유의 날카로운 감각과 시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이번 작품집에서도 여전했다. 첫 번째 시집에서 시인은 티베트 지방에서 행해지는 천장(天葬)을 소재로 죽음과 소멸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유한성을 노래했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의 감각은 생태적 사유와 연계돼 상상의 나라를 편다. 모두 60여 편의 시들은 붓다의 우주 연기설과 생태 철학을 근간으로 한다.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다’, ‘사막정원’, ‘섬광, 쇠방선’, ‘먼지 한 톨’, ‘새벽 실내정원’은 시인의 지향이 묻어있는 작품이다. 특유의 섬세하고 예리한 감각은 그녀의 시를 역동적이면서도 다채롭게 펼쳐내는 데 일조를 한다.

신덕룡 시인은 “그의 축수에 와 닿는 존재는 스스로를 넘어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자신을 바꾼다”고 평한다.

“배가 겨울 풍경을 보고 있다/ 마른 갈대 아래 푸른 색이 나오고/ 바다 건너 먼 산 어디쯤/ 흥거시가 있을 것이다//배가 풍경을 띄워 보낸다/ 구름도 바다도 겨울도/ 배 안으로 흘러왔다가/ 배 밖으로 흘러갈 뿐// 흥거시가 불타다/ 아득한 겨울 풍경 너머”(‘겨울 순천만’ 중에서) 풍경 너머 그 너머의 세계를 응시하는 시인은 깊고 서정적이다. 시인의 눈이 닿는 순천만은 하나의 정토에 다름 아니다. 김동진 전남대 교수는 “그곳은 석연경의 언어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석 시인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후 광주로 왔다. 광주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지금은 순천에 거주한다. 대학에서 강의하며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시를 쓰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시인은 “5년간 연구소 운영에 부모님께서 땅 팔아 자식들에 나누어준 돈을 다 썼다”며 “그 결과가 시집 두 권”이라며 웃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신헌창
책과생활 대표

1975년, 시인 김남주는 광주경찰서 옆 골목에 서점을 차렸다. 현재의 광주 동부경찰서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카프카 서점’이다. 아마도 광주 최초의 인문사회과학서점일 터인데, 요즘 말로 하면 독립서점이다. 왜 카프카였을까? ‘아버지’가 지배하는 세계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아래에서 혁명을 도모하던 시인은 매일 밤, ‘악몽의 리얼리즘’에 짓눌렸을 것이다. 카프카처럼 말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프카 서점을 떠올려본다. 왜인지 그 서점은 늦은 밤까지, 아니 아무도 다니지 않는 철학의 심야에만 축수 낮은 전구로 간신히 빛을 밝히고 불명의 청년들을 불러 모았을 것만 같다. 긴급조치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서점으로 모여든 미약한 불빛들... 거기서 책을 읽거나, 대낮에 하지 못

립한다. 강한 빛은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스템에 포섭된 기관, 기업, 학교, 공장, 도시 등에서 발산하는 휘황한 조명이다. 그 강한 빛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혹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잊고 있던 주변의 수많은 미광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감히, 요즘의 작은 서점들 도 그 미광의 군락에서 서식하는 일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심야책방의

낮은 끝났다. 불빛 서점으로 오라

했던 말들을 토해내거나, “불 앞에서 불과 타협”(김남주 ‘불’)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거나, 밤잠을 청하거나 했을 것이다.

올해는 25년 만에 돌아온 ‘책의 해’이다. 관련한 수많은 행사가 줄을 잇는다. 그중 ‘심야책방의 날’이 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심야책방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서점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불빛을 밝히고 사람들을 맞는 행사이다.

심야책방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미지는 시인 김남주의 카프카 서점이었다. 카프카 서점은 문을 연 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독립서점이 책을 팔아서 경영해나가기 힘든 건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은 비슷한 것 같다. 나 역시 이 서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자금 사정으로도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신변에 변화가 생겨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평생 서점 주인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자신 있게 서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선불리 하지 못한다.

이미지 연구자인 조르주 디다-위베르만이 2009년에 쓴 ‘반딧불의 잔존’이란 책이 있다. (한국어 번역본은 현재 아쉽게도 품절이다) 디다-위베르만의 ‘반딧불’ (Lucciola)은 미광(微光), 즉 ‘약한 빛’이다. 약한 빛은 강한 빛과 대

립한다. 강한 빛은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스템에 포섭된 기관, 기업, 학교, 공장, 도시 등에서 발산하는 휘황한 조명이다. 그 강한 빛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혹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잊고 있던 주변의 수많은 미광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감히, 요즘의 작은 서점들 도 그 미광의 군락에서 서식하는 일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심야책방의

올해는 25년 만에 돌아온 ‘책의 해’이다. 관련한 수많은 행사가 줄을 잇는다. 그중 ‘심야책방의 날’이 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심야책방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서점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불빛을 밝히고 사람들을 맞는 행사이다.

심야책방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미지는 시인 김남주의 카프카 서점이었다. 카프카 서점은 문을 연 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독립서점이 책을 팔아서 경영해나가기 힘든 건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은 비슷한 것 같다. 나 역시 이 서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자금 사정으로도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신변에 변화가 생겨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평생 서점 주인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자신 있게 서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선불리 하지 못한다.

이미지 연구자인 조르주 디다-위베르만이 2009년에 쓴 ‘반딧불의 잔존’이란 책이 있다. (한국어 번역본은 현재 아쉽게도 품절이다) 디다-위베르만의 ‘반딧불’ (Lucciola)은 미광(微光), 즉 ‘약한 빛’이다. 약한 빛은 강한 빛과 대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악의 히로애락’ 임방울국악회 5일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의 ‘우리국악의 히로애락’ 공연이 오는 5일 오후 1시 빛고을노인건강터온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에 출제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무대는 임방울국악제 농악 일반부 우수상 팀인 한국농악보존회광주시지회 김병주 외 11명의 풍물판굿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13회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예능보유자 강정숙 명창은 가야금병창 ‘호남가’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선사한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황소희, 유해림 외 7명의 무용수가 전통농악놀이 설장고에서 파생된 소고춤을 준비했으며 기약일반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송선명, 오영미 명인과 김준영, 박정진 수상자가 전통민속악기로 기약함주 연주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전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남도 민요’, ‘금강산타령’, ‘사철가’, ‘진도아리랑’으로 마무리한다. 문의 062-521-0731.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강정숙
가야금 병창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규모 1030억

낙찰총액 1위 214억 김환기 작가

올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거래액이 약 1030억 원(국내 경매사 해외법인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상미술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기 작품 낙찰액은 214억 원으로 기록됐다.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는 서울옥션-케이옥션을 비롯해 국내 9개 경매사의 1~6월 경매 결과를 조사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옥션이 약 618억 원(약 60%), 케이옥션이 약 351억 원(34%)을 거래해 양대 경매사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서울옥션은 비공개 경매 낙찰액을, 케이옥션은 애프터 세일 낙찰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반기 전체 경매 출품작은 총 1만2820점이었으며 이중 8815점이 낙찰돼 68.76%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총액 1위 작가는 예상대로 김환기였으며 총액은 약 214억1800만 원, 낙찰률은 87.5%로 집계됐다. 작가 별로 보면 김환기, 이우환, 이중섭, 구사마 야요이, 김창열, 박서보, 박수근, 천경자, 백남준, 이대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